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 조경공간의 설계요소 개선방향 연구

이유나* · 김신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I.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428km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3447.06km(2008. 12.31 기준)에 달하며, 구간별로 개설된 휴게소가 168개소에 이른다. 고속도로 총연장길이가 늘어나는 동시에 휴게소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휴게소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되었다. 이제는 휴게소도 치열하게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조성인, 2007).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휴게소들은 80년대, 90년대에 조성된 곳으로서, 그 시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고속도로의 시설과 경관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휴게소의 조경공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낙후된 공간에 대한 개선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의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대수는 연간 약 172,681,000대로 경부선(약 337,796,000), 서울외곽선(약 296,966,00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소비자 749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목적에 질문한 결과, '휴식'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당이용 및 용변'이 각각 55.4%, '주유'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09). 이처럼 이용객의 수요와 방문 목적에 따른 조경공간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경분야에서 접근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계 요소에 대하여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공간으로의 제 역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간이 가진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마련한 규정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대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지인 영동고속도로 내 13개 휴게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서창분기점)에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강릉분기점)에 이르는 고속국도로서 총 13개의 휴게소가 위치한다. 각 휴게소별 조경공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설계요소의 특성이 적합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념과 설계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조경공간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다. 그 후 이론을 바탕으로 조경공간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III. 대상지 현황분석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은 물류비용 절약, 국토 균형발전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매년 여름 휴양지로 '설악산과 동해안'이 1순위로 선정됐고(한국도로교통협회, 2010), 겨울에는 정동진 여행과 대관령의 비경(秘境)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송도유원지 · 한국민속촌 · 에버랜드 · 이천온천 · 치악산국립공원 · 오대산국립공원 · 경포도립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많다.

이러한 이용객들의 수요 증대로 인해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낡고, 오래된 건축물과 시설물로는 이용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설 그 이상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외부공간의 특화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 분석방법

문헌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장조사를 진행하여 사진촬영 및 실제 거리 측정을 비롯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속도로 외부공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확인하고, 앞서 연구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현재 공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지 분석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13개의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 조경공간과 관련된 평가 요인 가운데 분석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휴게소는 덕평휴게소로 29가지 항목(100%) 모두 '그렇다'에 체크되었고, 횡성 상행 휴게소는 23개 항목(77%)이 '아니다'에 표시되었다. 또한 상행, 하행으로 나뉘어진 휴게소들 가운데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대상지 대부분은 유사한 구성과 설계로 평가항목 결과 또한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휴게공간에서 평가항목 중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공원 안내 표지나 공원 시설 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되어 있는가?',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는 공원 시설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가?'가 대두되었다.

도로변녹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61.54%로 '녹지대의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50m 이내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휴게소들이 적정 규정인 10~50m 이내를 벗어난 1m 50cm, 3m 20cm, 4m 50cm로 소음과 차폐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이외에 식재에 관련된 항목들은 양호한 편이었다.

외곽수립대의 평가항목 결과에서는 50% 이상이 '그렇다'로 잘 정돈된 모습이었으나, '아니오'에 체크된 휴게소들은 유지관리부분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 조경공간 13개소 대상지의 자세한 사항은 그림 1과 같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 조경공간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항목조사에서 29개에 해당하는 각각의 평가요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요소들 중 60%가 분석항목의 기준에 알맞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40%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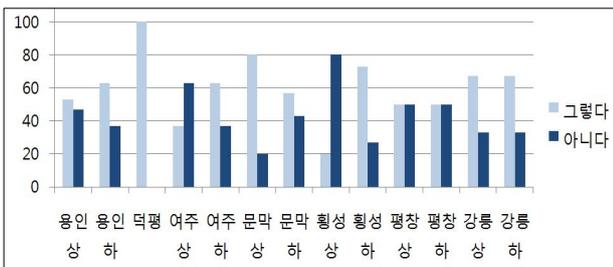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별 분석항목 결과 그래프

IV. 대상지 조경공간의 개선방향

1. 지형의 변화를 활용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의 조성

지형의 변화는 70%라는 가장 큰 문제의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휴게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평탄한 지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림 2와 같이 기존의 지형을 변경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식재와 다양한 볼거리를 이용하여 통합적 경관과 깊은 공간감으로 탈바꿈시킨다면, 휴게소의 일반적인 휴식공간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그림 2 참조).

2. 공원 안내 표지나 공원 시설 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를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의 항목에서 77%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보행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각매체는 경관을 방해하거나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그림 3과 같이 이를 개선하여 크기를 줄이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행자의 시각적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나무나 돌을 이용한 자연적 재료의 사용으로 이질감을 줄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그림 3 참조).

3.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 공원 시설 안내도 설치

공원 시설 안내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에서 77%의 휴게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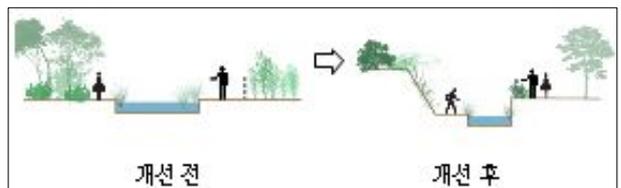


그림 2. 지형의 변화를 활용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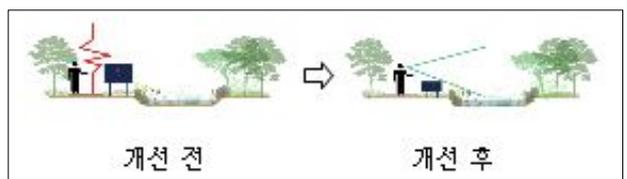


그림 3.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개선안

로 나타났다. 휴게소 건축물 양 측면에 조성된 공원은 자세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졌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이용자들의 흐름을 유도하는 안내 시설물을 진입부, 결정점에 설치한다(그림 4 참조).

4. 적절한 조명을 통한 야간 활용도와 안정성의 확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휴게소 건축물 한편에 위치해 있던 휴게공간에 조명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간이 우범화되어 있었다. 약 62%의 대상지에서 조명시설이 전무하거나, 가로등이 1~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그림 5와 같이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 줌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그림 5 참조).

5. 공원의 주제에 맞는 통합시설의 설치

13개 휴게소 가운데 62%가 기존의 시설 및 새로 구입한 시설이 소재나 디자인에서 너무 다른 느낌의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간별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공간별 특성을 파악하여 휴게공간, 문화공간, 운동공간 등으로 분류하고 공간의 특성을 살려 통합시킨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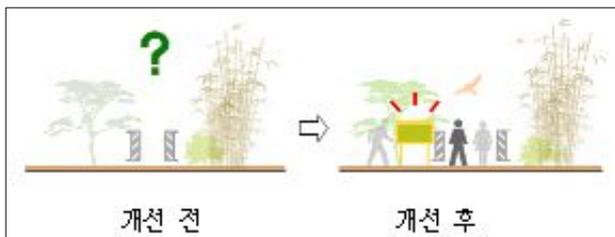


그림 4. 시설안내도에 대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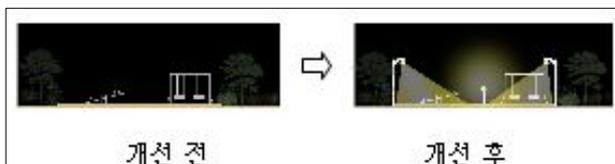


그림 5. 야간 활용도와 안정성의 확보에 대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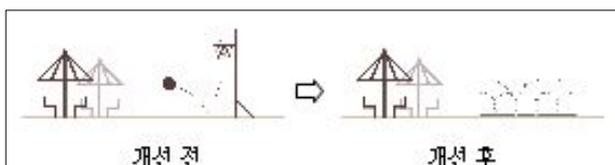


그림 6. 공원의 주제에 맞는 통합시설의 설치에 대한 개선안

6. 녹지대의 폭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50m 이내로 조성

고속도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음 녹지대의 폭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62%의 휴게소들은 10m를 넘지 못하는 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7과 같이 폭이 10m를 넘지 못하는 지역에는 녹지대의 폭을 10m가 넘도록 개선하고, 식재의 수고가 13.5m 이상이 되도록 조성한다(그림 7 참조).

7.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

자판기와 같은 시설물 위주의 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한다는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림 8과 같이 자판기는 휴게소 벽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녹화율을 높인 휴식공간을 확충한다(그림 8 참조).

8. 입구성 부여

용인(상) 휴게소 내에 위치한 전통정원의 입구는 입구의 크기가 작고 흥미 없는 형태로 인해 이용객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를 그림 9와 같이 개선하여 입구의 폭을 넓히고, 입구부에 상징적 식재를 통하여 입구성을 강조함으로써 휴게소 이용객의 공원 접근성을 높인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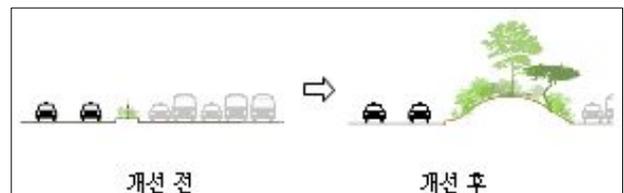


그림 7. 녹지대의 폭에 대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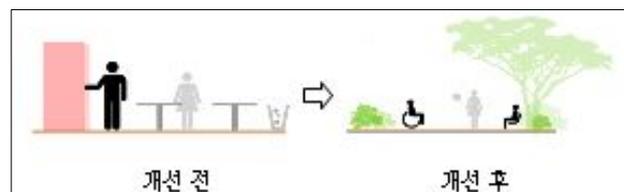


그림 8.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의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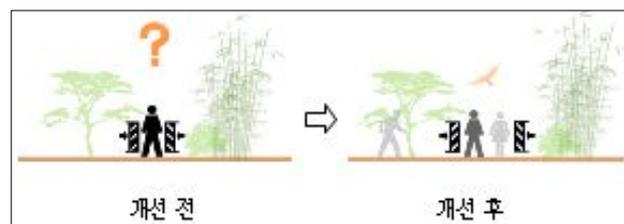


그림 9. 입구성 부여에 대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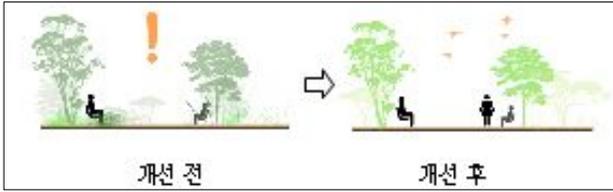


그림 10. 지속적 관리를 통한 개선 공간 유지의 개선안

9. 지속적 관리를 통한 개선 공간의 유지

강릉(하) 휴게소는 크기에 있어서 덕평휴게소 다음으로 큰 85,218m²이다. 외부공간 설계나 형태 디자인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곳곳에 돌과 잡초가 산재되어 있어 이용객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고 있었다. 외부공간 설계와 형태 디자인을 통해 개선된 공간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하여 이용객들에게 여유를 느끼게 하는 휴식공간으로 개선한다(그림 10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13개소 휴게소를 대상으로 휴게소 내 조경공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영동고속도로의 13개 휴게소 내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공간 및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해냈다.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기존 조경설계기준에 맞춰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추출된 29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평균점이 낮은 항목을 선정하여 개선전의 모습과 개선후의 모습을 공간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조경공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경관 조성의 미흡, 공공시각매체의 공해, 시설 안내도의 부족, 조명의 미설치로 인한 야간활동 방해, 공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의 설치, 도로변 녹지대의 폭 미달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공원에는 미세한 지형 변화를 이용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이 조성되어 있는가?”

- 휴게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평탄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 기존의 지형을 살려 공간을 조성한다.
- 식재와 다양한 볼거리를 이용하여, 깊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 경관으로 탈바꿈한다.

둘째, “공원 안내 표지나 공원 시설 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되어 있는가?”

- 보행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각매체는 경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크기를 줄이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 나무나 돌 등의 자연적 재료의 사용으로 이질감을 줄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다.

셋째,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는 공원 시설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 이용자들의 흐름을 유도하는 안내 시설물을 각각의 요소에 설치한다.

넷째, “적절한 조명을 통하여 야간의 공간활용도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어린이놀이시설과 공원시설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다섯째, “공원의 주제에 맞는 시설들을 통합하여 설치했는가?”

- 공간별 특성을 파악하여, 휴게공간, 문화공간, 운동공간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공간의 특성을 살려 통합시킨다.
- 자판기는 휴게소 벽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녹화율을 높인다.

여섯째, “녹지대의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50m 이내 인가?”

- 폭이 10m를 넘지 못하는 지역에 수고가 13.5m 이상인 수목을 식재하며 녹지대의 폭은 10m 이상으로 개선한다.
- 일곱째, 현장조사를 마친 후 문제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 3가지를 선정하여, 개선방향에 추가하였다.

- 자판기는 휴게소 벽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녹화율을 높인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경공간을 개선하여 입구를 넓히고, 전통정원 내의 연못이나 동식물을 이용한 체험공간으로 개선한다.
- 바닥면에 흩어져 있는 돌과 잡초를 제거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휴게소 내 조경공간에 대한 연구나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나 제도의 구축,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건축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외부공간인 조경디자인 영역으로 확대시켜, 휴게소가 위치한 공간의 특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간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인용문헌

1. 조성인(2007) 문화관광저널. 5월호.
2. 한국도로교통협회(2010)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選. 한국도로공사.